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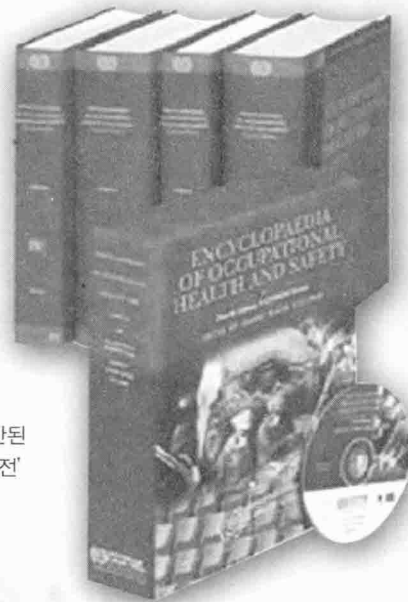
“세계산업안전보건 백과사전 내손으로 만든다”

## 국제노동기구,

## 산업안전보건백과사전 발간에 국내 전문가 모집

- 전세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내용을 총 집대성한 '산업안전보건 백과사전'에 국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 최근 국제노동기구(ILO)는 5번째 제작하는 산업안전보건 백과사전의 발간을 담당할 각 분야별 국내 전문가를 모집한다.
- 참가대상은 산업안전보건학과 및 유관기관 등 국내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로 산업안전보건관련 저술 및 편집, 검토를 담당하게 된다.
- 저술 및 편집, 검토 등 발간작업의 결과물은 영어이며, 발간에 참여한 전문가는 국제적인 안전보건전문 네트워크활동에 참여하고 백과사전에 이름이 등록된다.
- 이번 ILO 산업안전보건 백과사전의 주요 주제는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현장 근로자의 보건증진 프로그램, 나노기술, 산업보건 프로그램의 사회심리적 중요성 등이며 새로운 주제에 대한 제안도 가능하다.
- ILO 산업안전보건 백과사전은 1930년 초판을 발행한 후 1998년까지 4번째 개정판이 발간되었으며, 4번째 개정판은 50개국의 공공부문, 학계, 산업계 등 2천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105개 주제에 대해 총 4,000페이지로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백과사전은 영어, 불어, 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으로 번역되어 각국에서 참고문헌으로 널리 활용, 발간되고 있으며, 한국어도 부분 번역되어 출간된 바 있다.

- 이번 5번째 백과사전은 2009년 이후 발간 될 예정으로 오는 9월까지 참여할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으며, 발간에 참여를 원할 경우, 이메일 Encyclopaedia@ilo.org, overseas@koshanet이나 032-510-0742로 문의하면 된다.
-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국제노동기구 백과사전 발간에 국내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권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며, 국내 우수 안전보건정책을 전세계에 소개하는 한편, 사업장 우수사례를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1998년 4번째 발간된  
'ILO 산업안전보건 백과사전'

## 조직이 직원에게 해 줄 수 있는 최상의 복지는 지독한 훈련이다

### -교육소감문

내가 완벽하게 신념화 교육을 이수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  
난 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분명 교육전과  
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교육 때 느꼈던,  
여러 가지 느낌들을 잊지 않고 업무나 일상  
생활에 접목하는 것이 나에게 남은 진정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대전센터 박규태

교육장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참 부끄  
럼 많고 소심한 저였습니다. 스피치 훈련을  
통해 당당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신념화 교육을 통해 끈기와 인내, 또한 할 수  
있다, 하면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항상 미리 겁먹고 포기하고 당당하지 못  
했던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며 잊지 못  
할 교육이었습니다.

- 서울센터 박경학

항상 남 앞에 서면 부끄러워 하고 싶었던  
말도 잘하지 못했던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 준 교육이었습니다. 물론 4박 5일 동  
안 힘들기도 했고, 처음에 입소하면서 할  
수 있을까 고민과 걱정이 많았지만, 다 해  
냈고, 하면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산행을 하면서 같은 목표를 향  
해 걸어가는 동료와 내가 힘들 때 손  
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주고, 동료가 힘들  
때 내가 잡아 줄 수 있다는 것을 통하여 동  
료애를 느꼈습니다.

- 대전센터 이현숙

군대를 제대한 이후 이 정도까지 긴장감  
과 힘들었던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  
다. 이번 5일간의 교육을 계기로 무슨 일이  
던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 한마음혈액원 이창호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였고, 그 나름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힘들어서 또 어떨 때는 한계라고 느껴서 악에 받치고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4박 5일이란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정말 이런 것도 견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들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이 많았던 만큼 타센타라서 서먹하기만 했던 점들을 극복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 대구센타 송영선

늘 타인과의 경쟁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문화 속에 살았는데 처음으로 자신과 경쟁이 가장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박 5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옆의 동료가 경쟁자이기 보다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함께 해나가는 동반자로 느껴졌기에 힘든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 한마음혈액원 윤형주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자!!! 아직까지 나 자신의 틀에 갇혀 아무 생각 없이 업무를 받아들이고 그 업무에 익숙해지면서, 나태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나 자신을 반성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인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대전센타 황인호

처음 교육일정을 들었을 때, 4박 5일이라는 시간이 참 길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교육을 끝낸 지금, 내가 언제 여길 왔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입소 전과 비교해보면 달라진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감과 패기라는 단어와 악과 깡이라는 단어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 낼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슴에 담고 갑니다. 교육이 끝나고 센타에 돌아가면 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불평, 불만보다는 내가 먼저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술선수범하는 자신이 될거라고 다짐합니다.

- 울산센타 한동훈

교육을 마치면서 가슴에 남는 건 먼저 창조적 업무개선은 누군가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변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창조적 업무개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낭비했던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신념화 훈련 당시엔 이 고되고 힘든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지만 나 자신이 100% 몰입했을 때 진정으로 신념화된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진정 신념화 훈련이 포기하고 싶을 때, 적당히 하고 싶을 때, 업무에 있어 나태해 질 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끝없이 동기부여를 해 줄 것입니다.

- 울산센터 박 경 민

‘본 교육 과정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된 점이 있다면?’이라는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에게도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내 자신이 강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끼고 돌아옵니다. 이 기분, 이 상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 마산센터 권 현 숙

처음 스피치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에 두려운 마음이 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저였습니다. 스피치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또 나의 각오를 통해 제 자신을 돌아 볼 수 있어 가슴에 많은 것을 담는 시간이었습니다.

- 울산센터 박 아 영

처음 ‘불합격’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게 뭐가?’ 하며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새삼 놀라곤 했습니다. ‘불합격’이라는 말에 더욱더 열의와 도전의식을 북돋았고, ‘합격’이라는 말에 자신감, 성취감, 희열을 느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내고야 만다. 나는 성취인이다. 오늘부터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 본부 보건관리국 배 명 우